

UNHCR GLOBAL REPORT

# 2021 연례 보고서

“숫자 너머의 이야기”





발행인 제임스 린치  
 발행처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발행일 2022년 7월  
 제공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민간파트너십(PSP)팀  
 디자인 쥐이팜

Cover Story

“2010년의 어느 월요일 오전 6시. 학교에 가려고 준비하는데 총소리가 들렸어요. 반군은 사람과 사물을 가리지 않고 총을 쏘아댔어요. 집에 머무는 것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되자 엄마는 여기를 벗어나야 한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6개월 된 남동생을 업고 제 학교 가방에 옷 몇 벌을 챙기셨어요. 저는 아빠가 걱정되어 머뭇거렸지만, 엄마는 당장 떠나야 한다고 저를 재촉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집을 떠났어요. 제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곳이었어요.”  
 킬리폰사(Tiliphonsa)의 이야기는 허구이지만 전 세계 수많은 난민들의 실제 경험을 대표합니다.

전 세계 135개국 523개 지역에서 1만 8,000명 이상의 직원이 8,930만 명에 이르는 난민을 포함한 전 세계 강제 실항민을 보호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에 위치한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2001년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으로 개소한 이래, 정부 및 시민 사회와 협력하여 국내 난민 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전 세계 난민의 상황을 알리고 한국 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후원과 참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 제네바 본부는 매년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 연례 보고서를 발행하여 지난 한 해 동안의 난민 보호 및 지원 현황을 각국 정부와 파트너, 후원자들에게 알리고 있으며, 한국대표부는 대한민국 파트너와 후원자들을 위해 매년 연례 보고서의 주요 부분을 발췌하여 한국어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국영문 연례 보고서는 한국대표부 홈페이지(www.unhcr.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문 연례보고서 보기

Contents

2021년 세계 난민 동향	4
2021년 월별 주요 활동	6
2021년 주요 활동 및 성과	8
난민 이야기로 보는 분야별 난민 보호 및 지원 활동	24
유엔난민기구 직원 인터뷰	30
글로벌 캠페인 업데이트	34
재정 보고	36
한국대표부 주요 활동	40
유엔난민기구 보호 대상자	42
후원자님, 고맙습니다!	43



들어가는 말

올해의 우크라이나 사태와 2021년의 아프가니스탄 사태, 그리고 지난 수십년간 발생한 다른 수많은 실항 사태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강제로 실항하거나 무국적이 된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이들은 실항민 혹은 무국적자가 되기를 원하지도, 기대하지도, 요청받지도 않았으며, 어떤 특별한 종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누구나가 언제든 직면하게 될 수 있는, 이들이 가진 공통점은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생존과 회복,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재개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전 세계 모든 보호 대상자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전념하고 있지만, 우리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2021년 감사하게도 많은 국가와 지역사회, 후원자가 전 세계 강제 실항민들을 보호하는데 함께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한 해 동안 40개의 긴급구호 상황에 대응하고 난민을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했으며, 역량을 개선하고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좀 더 기민하고 효율적, 포용적, 협력적인 기구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난민기구는 우리와 함께하는 전 세계 파트너들의 네트워크 덕분에 힘을 얻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이타주의, 연대, 배려에 용기를 얻어 많은 바 임무를 완수할 것입니다.

# 2021년 세계 난민 동향

2021년 말 기준 난민 포함 전 세계 강제 실항민 수는 8,930만 명으로 10년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 8,240만 명보다 약 690만 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Kabul)에서 겨울 현금 지원을 받기 위해 줄 서있는 난민들을 돕고 있는 유엔난민기구 직원 © UNHCR/Andrew McConnell

## 전 세계 강제 실항민 수



- 난민 2,710만 명
- 유엔난민기구 등록 난민 2,130만 명
-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등록 580만 명
- 국내 실항민<sup>1)</sup> 5,320만 명
- 난민 신청자 460만 명
- 해외 거주 베네수엘라 실항민<sup>2)</sup> 440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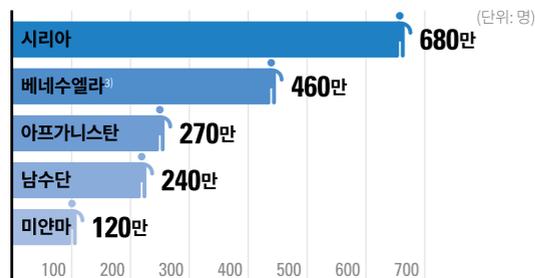
## 신규 난민 신청자



2021년 140만 명이 새로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18만 8,900명의 신규 난민 신청을 받은 미국이 최다 난민 신청자 접수국이 되었으며, 독일(14만 8,200명), 멕시코(13만 2,700명), 코스타리카(10만 8,500명), 프랑스(9만 200명)가 뒤를 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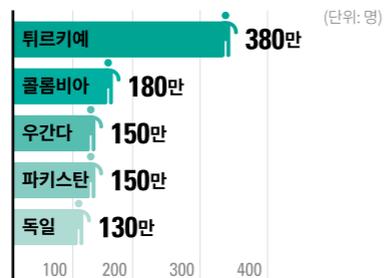
## 난민 발생 상위 5개국

해외 거주 베네수엘라 실항민을 포함한 전 세계 난민의 69%는 다음 5개국에서 발생했습니다.



## 난민 비호 상위 5개국

전 세계 국가 중 시리아 주변국 튀르키예가 380만 명으로 7년 연속 가장 많은 난민을 비호했습니다.



## 베네수엘라 난민과 이주민



베네수엘라 난민과 이주민 조정 플랫폼 (Coordination Platform for Refugees and Migrants from Venezuela)<sup>4)</sup>에 보고된 베네수엘라 난민, 이주민, 난민 신청자 수는 610만 명입니다.

## 자국민 6명당 1명



2020년 아루바섬이 자국민 6명당 1명에 이르는 가장 많은 타국 실항민(베네수엘라 출신)을 받아들인 나라였으며, 레바논이 자국민 8명당 난민 1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1) 출처: 국내실항모니터링센터(IDMC) 2) 베네수엘라 난민 신청자, 난민제외 3) 베네수엘라 난민과 해외 거주 실항민 포함 4) www.r4v.info 5) 레바논 거주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등록 팔레스타인 난민 48만 3,000명 포함시 비율 1/5로 증가 6) 레바논은 48만 3,000명, 요르단은 230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등록 난민 수

## 개발도상국에 체류하는 난민 비율



해외 거주 베네수엘라 실항민을 포함한 전 세계 난민의 83%는 개발도상국에 체류했으며<sup>7)</sup>, 이 중 27%가 세계 최빈국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 귀환민 수



2021년 한 해 570만 명의 강제 실항민이 고국 혹은 살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중 530만 명은 국내 실항민이며 이웃 국가에 머물던 난민 42만 9,300명도 귀환했습니다.

## 출신국 주변국 체류



해외 거주 베네수엘라 실항민을 포함한 전 세계 난민의 72%가 출신국 주변국에서 체류했습니다.

## 재정착 난민



각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3만 4,400명)보다 3분의 2가 증가한 5만 7,500명이 2021년 다른 나라로 재정착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6만 3,200명의 재정착 신청을 지원했습니다.

## 강제 실항민 인구 분포



18세 미만 아동은 전 세계 인구의 30%를 차지하지만 강제 실항민 인구의 약 41%를 차지합니다.<sup>8)</sup>



글로벌 동향 보고서

더 자세한 2021 글로벌 동향 보고서는 좌측 QR코드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7) <https://www.unhcr.org/refugee-statistics/insights/explainers/refugee-host-countries-income-level.html>

8) 출처: 국내실항모니터링센터(IDMC),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유엔난민기구(UNHCR), 유엔경제사회국(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 2021년 월별 주요 활동



## 1월

### 불안 고조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실향민 보호 및 지원

중앙아프리카공화국(CAR)에서는 총선 과정을 둘러싼 불안이 고조되면서 수십만 명이 안전을 찾아 고향을 떠났습니다. 1월 말까지 20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고, 약 10만 명이 인근 국가로 피난했습니다. 외딴 지역인데다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아 실향민들에게 접근이 어려웠지만, 유엔난민기구는 여러분의 도움으로 난민을 등록하고 식량, 임시 거처 및 기본 구호품 전달을 확대했으며 우기가 오기 전에 필요 물품을 미리 공급했습니다.



## 2월

### 최악의 인도적 위기에 직면한 예멘 실향민 보호 및 지원

예멘의 마립(Marib) 지역에서 다시 불붙은 무력 충돌로 인해 이미 곤경에 처한 수천 실향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예멘은 2015년 분쟁 시작 이래 극심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휩싸여 있으며, 빈곤과 기근까지 겹쳐, 국내 실향민 400만 명을 포함, 약 2,000만 명이 목숨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유엔난민기구는 여러분의 후원 덕분에, 현장에 남아 임시 거처, 담요, 주방용품, 현금 지원 등을 제공했고, 인프라 재건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 3월

### 화재로 황폐화된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촌 지원

세계 최대 난민촌인 방글라데시 쿠투팔롱(Kutupalong) 난민촌을 덮친 화재로 난민 15명이 목숨을 잃고, 5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거처와 소유물을 잃은 4만 8,000명의 난민을 보호 및 지원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심리·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 600명 이상이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담요, 태양광 램프, 의약품 등을 배급하고 긴급 위생 시설도 재건했습니다.



## 12월

### 물 부족으로 인한 충돌 피해 피난길에 오른 카메룬 실향민 보호 및 지원

카메룬 북부에서 기후 위기로 인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점점 줄어드는 물 자원을 둘러싼 집단 간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차드호의 수면은 95%나 낮아졌습니다. 충돌을 피해 최소 10만 명이 고향을 떠났고, 이들 대부분이 여성과 아이들입니다. 일부는 카메룬에 남아있으나 대부분은 국경 넘어 차드로 향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유엔난민기구는 신속하게 긴급 거처, 보건 및 보호 서비스 등 도움을 전하고, 지역사회에 화해를 도모했습니다.



## 11월

### 실향민들에게 더욱 가혹한 기후 위기 여파 대응

기후 위기는 인도적 위기입니다. 전 세계 난민의 90%, 국내 실향민의 70%는 기후 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기상 이변은 특히 전 세계 강제 실향민의 대부분이 체류하는 개발도상국을 위협합니다. 허리케인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집단 폭력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중앙아메리카의 온두라스가 이러한 '기후 핫스팟'의 사례입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유엔기후변화협약(COP26)에 참여해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대한 긴급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 10월

### 벨라루스와 폴란드 국경 지역에서 수천 명 보호 및 지원

수천 명의 난민과 난민 신청자가 8월 중순 이후 벨라루스와 폴란드 국경 지역에서 발이 묶인 채 사투를 벌였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식량과 물 공급도 없이 임시 거처에 지내면서 여성, 아이들, 남성들은 주린 배를 안고 야외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이들의 생사는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위생용품, 담요, 식량 등 구호품을 배급하고 상황을 평가하여 인도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1년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수많은 강제 실향민을 보호하고 도왔습니다.

지난해 유례없는 도전, 분쟁, 위기가 이어졌지만 유엔난민기구는 함께 항상 준비되어 있었고, 함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 4월

### 폭력 사태 고조된 모잠비크 북부 실향민 보호 및 지원

모잠비크 북부 카보 델가도(Cabo Delgado) 지역에서 무장 단체가 일으킨 폭력 사태가 고조되면서 수십만 명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해안 도시 팔마(Palma)에서 수십 명이 사망했고 보건 서비스, 물, 임시 거처 및 식량에 대한 접근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새로 발생한 실향민 대부분은 여성과 아이들이며, 3년 전 위기 시작 이후 실향민 수는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유엔난민기구는 실향민들에게 담요와 수면 매트, 임시 거처 등을 제공하고 가족 재결합을 도왔습니다.



## 5월

### 콩고민주공화국 화산 폭발 피해 실향민 보호 및 지원

5월 22일 콩고민주공화국, 고마(Goma)시 니라공고(Nyiragongo) 화산 폭발로 수천 명이 안전을 찾아 대피했습니다. 재해는 지난 몇 년 간 폭력 사태로 200만 명이 실향한 북키부(North Kivu) 주의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유엔난민기구는 여러분의 후원 덕분에, 긴급 거처와 담요, 태양광 램프와 같은 구호품을 배급하는 등 생명을 살리는 도움을 전하고, 심리·사회적 지원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 6월

### 강제 실향민 사상 최고치 기록

유엔난민기구의 글로벌 동향보고서(Global Trends Report)에 따르면 폭력과 박해를 피해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숫자는 2020년 8,240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2021년 하반기 8,4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들 중 약 절반은 18세 미만이며 대부분은 국내 실향민이었습니다. 필리포 그란디 최고대표는 "각 숫자 이면에는 고향을 강제로 떠나야 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실향, 강탈, 고통의 이야기가 담겨 있으며, 우리는 인도적 지원뿐 아니라 이들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관심과 지원을 보내야 한다"며 기구의 임무를 강조했습니다.



## 9월

### 난민의 생명을 지속해서 위협하는 코로나19 긴급 사태 대응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일부 진전을 보인 반면, 팬데믹이 대부분 개도국에 살고 있는 강제 실향민의 삶과 안전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다고 유엔난민기구는 경고했습니다. 약화된 보건 및 위생 시스템 뿐만 아니라 여행, 일, 학업에 대한 제약은 난민, 그중에서도 노인과 같이 가장 취약한 인구의 기본적인 생존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유엔난민기구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실향민들에게 보건 위생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난민 신청 경로를 보장했습니다.



## 8월

### 위기로 수십만 명 곤경에 내몰린 아프가니스탄 실향민 보호 및 지원

아프가니스탄에서 분쟁으로 가속화된 인도적 긴급사태는 이미 벼랑 끝에 놓인 국가를 더 큰 불안과 빈곤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탈레반의 집권으로 극에 달한 폭력 사태로 전국에서 사람들은 폭력, 굶주림, 인권 침해로부터 벗어나고자 고향을 등졌습니다. 새로 발생한 실향민 대부분은 여성과 아이들이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신속히 대응을 확대하고 현금 지원, 임시 거처, 긴급구호 물품, 위생 서비스 등 생명을 살리는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 7월

### 폭력 고조되는 에티오피아 티그레이 실향민 보호 및 지원

에티오피아 티그레이(Tigray) 지역에서 폭력이 고조됨에 따라, 이미 지난 6월 공습의 피해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역사회의 고통을 더했습니다. 기근 위기, 실향, 젠더 기반 폭력, 박해 및 위협에 처한 실향민의 강제 송환을 비롯한 인권 침해는 수십만 명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유엔난민기구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급증하는 필요에 맞서 기술 전문가 배치, 긴급 거처, 심리·사회적 서비스, 구호품 공급을 통해 인도적 대응을 확대했습니다.

# 2021년 주요 활동 및 성과

- 01 2021년 주요 활동 및 성과
- 02 지역별 주요 활동 및 성과
- 03 긴급구호

유엔난민기구가 후원자 여러분들과 함께 2021년 이루어낸  
주요 활동과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 01 2021년 주요 활동 및 성과

유엔난민기구는 전 세계 135개국 523개 지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전 세계 난민을 포함해 9,470만 명의 보호 대상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 이월금 등 포함 2021년 가용 기금 51억 5,300만)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2021년 다음과 같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 기본권 보호

- 등록 21,700,000명**  
 유엔난민기구 인구 등록 및 신원 관리 플랫폼(PRIMES\*)에 정보 등록된 개인  
 • 목표치: 19,000,000명  
 • 2020년 결과: 15,000,000명
- 난민 신청 52,800건**  
 유엔난민기구가 처리한 개별 난민 신청 건수  
 • 2020년 결과 (수정 버전): 70,700건
- 무국적 81,200명**  
 국적 취득 혹은 재확인된 무국적자  
 • 목표치: 90,000명  
 • 2020년 결과: 63,200명
- 아동 보호 53,500건**  
 아동 수요 조사(Best Interests Assessments) 건수  
 • 2019년 결과: 46,000건

\* PRIMES(Population Registration and Identity Management Eco-System): 유엔난민기구의 등록 및 신원 관리 작업의 중심에 있는, 유엔난민기구의 모든 디지털 등록, 신원 관리 및 사례 관리 도구(ProGres, BIMS, GDT 등)를 상호 운용 가능하게 연결한 플랫폼입니다. PRIMES에는 개인 정보(기본 정보 및 생체 인식 정보)와 기타 필요 정보 등이 저장되어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신원 관리(난민 등록, 생체 인식 등록) 및 문서화 작업, 사례 관리(난민 지위 결정, 재정착, 무국적, 강제 송환, 법적·물리적 보호, 아동 보호, 성에 기반한 폭력 등), 지원(현금 및 구호 물품) 등의 서비스를 위해 안전하게 접근 및 사용됩니다. [www.unhcr.org/registration.html](http://www.unhcr.org/registration.html)

## 생명을 구하는 대응

- 긴급구호와 구호 물품 미화 4,760만 달러 상당**  
 긴급구호 지역에 전달된 구호 물품  
 • 2020년 결과: 3,620만 달러
- 현금 지원/생계비 보조 6억 6,800만 달러**  
 모든 활동 지역에서 보호 대상자에게 전달한 현금 지원/생계비 보조금 액수  
 • 목표치: 7억 달러  
 • 2020년 결과: 6억 9,500만 달러

- 임시 거처 318,500명**  
 적어도 40개의 활동 지역에서 개선된 거처의 혜택을 받은 보호 대상자  
 • 목표치: 250,000명  
 • 2020년 결과: 280,000명

## 더 나은 미래 건설

- 의료 0.2**  
 난민촌 내 5세 미만 사망률 (월 1,000명 기준)  
 • 목표치: < 1.5  
 • 2020년 결과: 0.19
- 교육 1,900,000명**  
 초등 교육 받은 아동  
 • 목표치: 2,000,000명  
 • 2020년 결과: 1,700,000명  
 183,000명  
 중고등 교육 받은 학생  
 • 목표치: 250,000명  
 • 2020년 결과: 170,000명  
 8,500명  
 고등 교육 이상 받은 보호 대상자  
 • 목표치: 15,000명  
 • 2020년 결과: 7,100명
- 재정착 39,300건**  
 유엔난민기구의 지원 받은 재정착 건수  
 • 목표치: 80,000건  
 • 2020년 결과: 22,800건
- 물과 위생 37%**  
 하루에 최소 20리터의 안전한 물을 얻은 보호 대상자 비율  
 • 목표치: 45%  
 • 2020년 결과: 43%
- 에너지와 환경 보호 2,500,000명**  
 지속 가능한 전기 공급원에 접근한 보호 대상자  
 • 목표치: 2,900,000명  
 • 2020년 결과: 1,700,000명

# 02 지역별 주요 활동 및 성과



## | 아프리카

동아프리카에서는 에티오피아와 우간다, 수단, 남수단에서의 활동에 힘을 쏟았고, 남아프리카에서는 분쟁과 니라공고 화산 폭발까지 덮친 콩고민주공화국, 모잠비크에서의 활동에 주력했습니다. 정치적 불안과 무장 세력, 기후 변화로 인한 자원 갈등 등으로 분쟁과 실향이 심화된 서중앙아프리카에서는 차드, 니제르, 부르키나파소의 활동을 중심으로 보호 대상자들을 도왔습니다.

고향 에티오피아 티그레이(Tigray)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피난길에 가족들과 헤어졌다가 유엔난민기구의 도움으로 수단 난민촌에서 가족들과 재회한 54세 수라푸엘(Surafuel) © UNHCR/Ahmed Kwarti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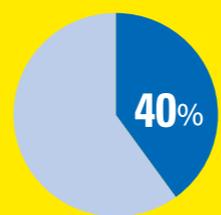
### 주요 활동 및 성과

2021년 아프리카에서는 약 3,830만 명(동아프리카 1,920만 명, 남아프리카 840만 명, 서중앙아프리카 1,070만 명)의 보호 대상자를 보호 및 지원했고, 다음과 같은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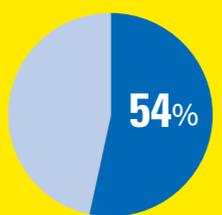
- 
**아동 보호 12,600명**  
 아프리카에서 아동 수요 조사 시작 혹은 완료한 보호자 없는 아동  
 • 2020년 결과: 29,700명
- 
**젠더 기반 폭력 25,300명**  
 아프리카에서 심리사회적 상담 받은 젠더 기반 폭력 생존자  
 • 2020년 결과: 17,700명
- 
**주요 구호 물품 102,000가구**  
 서중앙아프리카에서 주요 구호 물품 받은 가구  
 • 2020년 결과: 65,000가구
- 
**의료 건강 97%**  
 남아프리카에서 1차 국가 의료 시설에 접근한 보호 대상자 비율  
 • 2020년 결과: 90%
- 
**생계 및 자립 86,000명**  
 남아프리카에서 1년 이상 사업/자영업 종사하고 있는 난민  
 • 2020년 결과: 3,800명
- 
**교육 1,109,000명**  
 아프리카에서 초등 교육 받은 아동  
 • 2020년 결과: 971,000명
- 
**자발적 귀환 34,000명**  
 서중앙아프리카에서 유엔난민기구의 지원받은 귀환민  
 • 2020년 결과: 9,500명

### 보호 대상자



3,830만 명  
전 세계 보호 대상자 중 약 40%

### 가용 기금(사업비)



16억 2,460만 달러  
(필요 기금 중 약 54% 조성)



# | 중동·북아프리카

중동·북아프리카에서는 시리아와 주변국, 예멘에서의 활동에 주력했습니다. 지역 대응 계획을 통해 시리아 난민 200만 명이 현금 지원을 받았고,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튀르키예에 있는 난민 아동 14만 명이 특별 보호를 받았습니다. 예멘에서는 23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보호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기근 위기에 놓인 취약한 실항민 140만 명이 현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자타리(Za'atar) 난민촌에서 버스를 타고 의료 클리닉에 도착한 85세 파테메(Fatemeh)를 부축하고 있는 유엔난민기구 직원 © UNHCR/Shawkat AlHarfoush

## 주요 활동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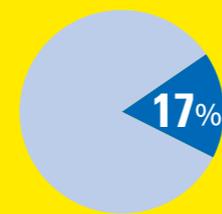
2021년 중동·북아프리카에서는 약 1,600만 명의 보호 대상자를 보호 및 지원했고, 다음과 같은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b>등록</b> 4,800,000명	유엔난민기구 인구 등록 및 신원 관리 플랫폼 (PRIMES proGres v4)*에 등록된 개인 • 2020년 결과: 2,200,000명
	<b>아동 보호</b> 17,000명	아동 수요 조사 시작 혹은 완료한 보호자 없는 아동 • 2020년 결과: 12,000명
	<b>젠더 기반 폭력</b> 34,000명	심리사회적 상담 받은 젠더 기반 폭력 생존자 • 2020년 결과: 28,000명
	<b>주요 구호 물품</b> 2,600,000명	주요 구호 물품 받은 보호 대상자 • 2020년 결과: 2,100,000명
	<b>현금 지원</b> 6,200,000명	현금 지원을 받은 보호 대상자 • 2020년 결과: 4,600,000명
	<b>교육</b> 134,000명	중등 교육 받은 학생 • 2020년 결과: 36,000명
	<b>재정착</b> 24,000건	유엔난민기구의 지원받은 재정착 건수 • 2020년 결과: 12,000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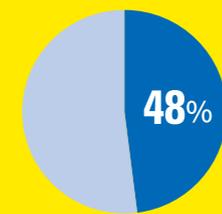
\* ProGres v4: 2003년 처음 개발된 ProGres는 중앙 집중식, 웹 기반 사례 관리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보호 대상자에게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하는 주요 도구입니다. ProGres v4는 추가 기능을 가진 ProGres의 최신 버전으로, 개인 등록에서부터 보호 사례 관리, 보호 개입, 문서 제공, 현금 지원 등 유엔난민기구의 광범위한 사례 관리 기능을 지원합니다. [www.unhcr.org/registration-guidance/chapter3/registration-tools](http://www.unhcr.org/registration-guidance/chapter3/registration-tools)

### 보호 대상자



1,600만 명  
전 세계 보호 대상자 9,470만 명 중 약 17% 차지

### 가용 자금(사업비)



13억 400만 달러  
(필요 자금 중 약 48% 조성)



# | 아시아·태평양

아시아·태평양에서는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사태 대응, 방글라데시에서의 활동에 주력했습니다. 2021년 폭력과 정치적 혼란으로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에서 각각 100만 명 이상의 국내 실향민이 발생했습니다. 최소 15만 8,000명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나 이웃국가로 피난했고, 연중 미얀마를 피난한 3만 1,000명 중에 1만 9,700명이 2021년 말까지 자국 밖에 머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Kabul) 외곽의 집 근처에서 겨울 추위와 식량 부족에 대처하고 있는 한 남성과 그의 두 살배기 딸 © UNHCR/Andrew McConne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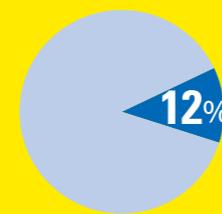
## 주요 활동 및 성과

2021년 아시아·태평양에서는 약 1,130만 명의 보호 대상자를 보호 및 지원했고, 다음과 같은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 
**등록 2,800,000명** 유엔난민기구 인구 등록 및 신원 관리 플랫폼 (PRIMES proGres v4)에 등록된 개인  
 • 2020년 결과: 1,800,000명
- 
**젠더 기반 폭력 7,700명** 지원을 받은 젠더 기반 폭력 생존자  
 • 2020년 결과: 4,900명
- 
**주요 구호 물품 178,000명** 위생용품을 받은 여성  
 • 2020년 결과: 124,000명
- 
**현금 지원 911,000명** 현금 지원을 받은 보호 대상자  
 • 2020년 결과: 798,000명
- 
**의료 120,000명** 보조금을 받아 이란의 공공 의료 보험 제도의 혜택을 받은 난민  
 • 2020년 결과: 100,000명
- 
**국내 실향민 귀환 1,100,000명** 아태평양 지역에서 고향으로 귀환한 국내 실향민  
 • 2020년 결과: 155,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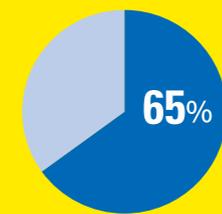
### 보호 대상자



1,130만 명

전 세계 보호 대상자 9,470만 명 중 약 12% 차지

### 가용 자금(사업비)



5억 8,250만 달러

(필요 자금 중 약 65% 조성)



# 미주

미주에서는 많은 베네수엘라 난민을 보호하고 있는 멕시코, 콜롬비아에서의 활동에 주력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가 풀리면서 각국 정부에 난민 신청 시스템의 디지털화, 기술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한편, 시민사회와 함께 공동 시설, 임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임시 거처에 대한 접근을 늘렸고,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온두라스, 베네수엘라에서 425개 임시 거처 및 정착지 프로젝트를 통해 27만 3,000명을 도왔습니다.

취약한 상황에 놓인 국내 실항민과 베네수엘라 난민을 보호하는 콜롬비아의 임시 정착지에서 난민 여성들과 아이들 © UNHCR/Catalina Betancur Sánchez

## 주요 활동 및 성과

2021년 미주에서는 약 1,700만 명의 보호 대상자를 보호 및 지원했고, 다음과 같은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 보호** 384,000명

시민 지위 등록 혹은 서류 작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신청자  
• 2020년 결과: 222,000명

308,000명

법적 지원을 받은 보호 대상자  
• 2020년 결과: 246,000명
- 등록** 1,510,000명

유엔난민기구 인구 등록 및 신원 관리 플랫폼 (PRIMES proGres v4)에 등록된 개인  
• 2020년 결과: 1,030,000명
- 주요 구호 물품** 340,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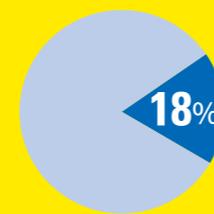
주요 구호 물품 받은 개인  
• 2020년 결과: 114,000명
- 임시 거처** 273,000명

임시 거처, 정착지 혹은 임시 숙소 등을 지원받은 사람  
• 2020년 결과: 246,000명
- 생계 및 자립** 53,000명

노동 시장에 대한 조언을 받은 보호 대상자  
• 2020년 결과: 35,000명
- 지역 사회 기반 보호** 355건

평화로운 지역 사회 공존을 위해 지원받은 프로젝트  
• 2020년 결과: 286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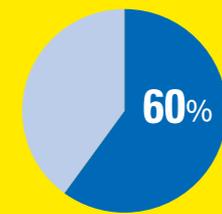
### 보호 대상자



1,700만 명

전 세계 보호 대상자 9,470만 명 중 약 18% 차지

### 가용 자금(사업비)



4억 3,580만 달러

(필요 자금 중 약 60% 조성)



# | 유럽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만 3,000명 이상의 난민과 이주인이 유럽에 도착했고, 이는 2020년보다 29%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들 대부분이 해상으로, 특히 이탈리아를 통해 유럽에 들어왔고 이탈리아에 도착한 인구는 2020년보다 약 2배나 많았습니다. 이 지역 일부 국가의 등록 및 접수 환경은 과밀하고 열악하여 보호자가 없는 아동과 인신매매 피해자 등 취약 계층의 보호 위험을 높였습니다.

아이들과 위험에 놓인 여성, 폭력과 고문 생존자,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포함해, 리비아에서 로마로 피난한 93명의 난민 신청자를 맞이하고 있는 유엔난민기구 직원 © UNHCR/Valerio Muscella

## 주요 활동 및 성과

2021년 유럽에서는 약 1,210만 명의 보호 대상자를 보호 및 지원했고, 다음과 같은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아동 보호** 22,300명(17%) 유럽(불가리아, 사이프러스, 그리스, 이탈리아, 몰타, 스페인) 도착 아동 수(비율)  
• 2020년 결과: 16,700명(18%)

**1,400명** 그리스에서 다른 유럽 국가로 이동한 어린이 (이 중 600명은 보호자 없는 아동)  
• 2020년 결과: 1,500명 (보호자 없는 아동 6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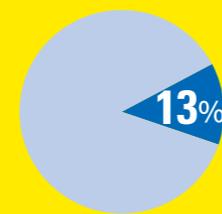
**난민 지위 결정 절차에 대한 정보 접근** 60,000명 난민 지위 결정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보호 대상자  
• 2020년 결과: 66,000명

**현금 지원** 463,000명 현금 지원을 받은 보호 대상자  
• 2020년 결과: 520,000명

**재정착** 21,000명 유럽 국가로 재정착(출발)한 개인  
• 2020년 결과: 11,000명  
**54%** 전체 재정착 중 유럽 국가 정착 비율  
• 2020년 결과: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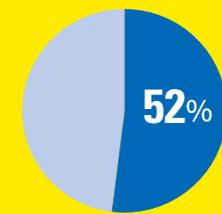
**지역 사회 기반 보호** 635개 지원받은 난민 주도 지역 사회 기반 단체  
• 2020년 결과: 80개

### 보호 대상자



**1,210만 명**  
전 세계 보호 대상자 9,470만 명 중 약 13% 차지

### 가용 자금(사업비)



**3억 6,390만 달러**  
(필요 자금 중 약 52% 조성)

# 03 긴급구호

모잠비크 카보 델가도(Cabo Delgado)의 실항민들에게 전달될 담요, 임시 거처 자재 등의 구호 물품 © UNHCR

## 주요 긴급구호 활동 및 성과

2021년에는 29개국에서 발생한 40건의 새로운 긴급구호 상황에 대응했습니다. 가장 높은 긴급구호 단계인 3단계 지역으로 지정된 아프가니스탄과 에티오피아에서 약 100만 명, 약 120만 명의 실항민을 각각 보호하고 지원했습니다. 또한 4,760만 달러 상당의 주요 구호 물품을 세계 곳곳에 전략적으로 배치된 물류 창고에서 각 구호 현장으로 전달했습니다.



447명

한 해 동안 파견된 유엔난민기구 및 파트너 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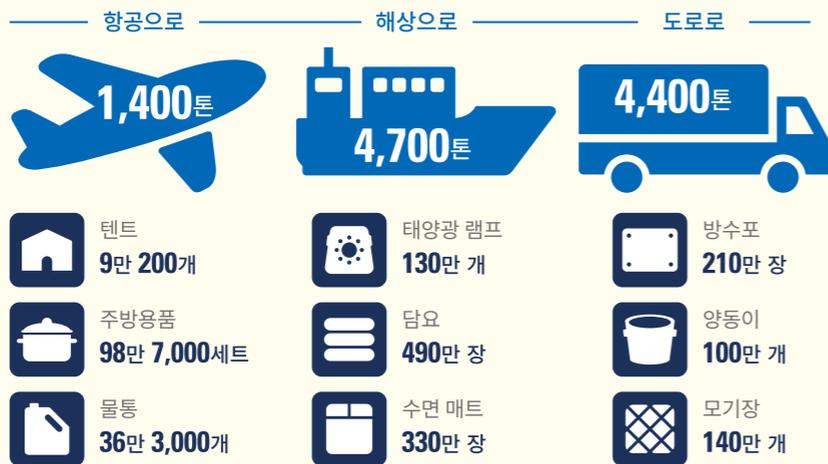


439명

긴급구호 대비, 관리, 리더십 등 훈련 받은 유엔난민기구 및 파트너 직원



28 회의 긴급 항공 수송을 통해 **72 시간내** 600,000+ 명 이상 보호 및 지원



### 코로나 대응 물품



# 아프가니스탄 긴급구호 Q&A

2021년 수많은 위기 중에도 두드러진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아프가니스탄입니다. 2021년 유엔난민기구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여러분의 후원이 어떻게 아프간 난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쓰였는지 소개합니다.

구호 물품을 싣고 파키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이동하고 있는 유엔난민기구 트럭 © UNHCR/Shaheryar Anjum

### Q1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어떻게 전개되었나요?

40년 이상 분쟁이 이어진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2021년 1월 무장 단체 간 충돌이 고조되면서 악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본 생존이 위협받았고 사상 최고의 사상자를 기록했습니다. 사태는 2021년 8월 탈레반의 집권으로 극에 달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 중순까지 7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국내 실항민이 되어 2021년 이전 거의 300만 명에 달한 실항민 대열에 합류했고, 약 14만 1,200명은 인접 국가로 피난했습니다.

### Q2 아프간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요?

2021년 아프간 사람들의 회복력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폭력과 불안으로 수십만 명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옷가지만 겨우 챙겨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폭력과 실항에 더해 코로나19 팬데믹과 극심한 가뭄,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혹독한 겨울 날씨는 아프간 가족들의 어려움과 역경을 더했습니다. 굶주림과 빈곤,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인구의 절반 이상은 인도적 도움을 필요로 하며, 세 명 중 한 명은 식량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22년 인구의 97%가 빈곤 상태로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극도로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이들은 임시 거처, 물, 음식, 주거 용품, 보호, 심리사회적 지원 등이 절실합니다.

### Q3 후원으로 어떻게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도왔나요?

유엔난민기구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24시간 현장에 머물며 현장의 필요를 충족하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지난 40년간 아프가니스탄과 주변국에서 가장 힘들고 불확실한 환경에도 현장을 지키며 아프간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해왔습니다. 글로벌 창고에 필요 물품을 확보하고, 직원을 훈련하고, 자금을 준비하여 안전한 거처, 위생, 현금 지원, 깨끗한 에너지, 의료 및 심리사회적 지원, 보호 서비스, 매트와 물통 등 핵심 구호품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가족들을 겨울의 추위로부터 지켜줄 방한 담요, 단열 키트, 태양광 램프 및 기타 동절기 필수품을 전달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여러분의 아낌없는 후원으로, 2021년 미화 4,0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하여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한 대응을 확대했고, 2021년 8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전했습니다. 2021년 8월 중순에서 12월 말까지 92만 6,000명을 포함해, 110만 명이 넘는 아프간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 UNHCR/Dustin Okazaki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2021년 8월~12월 아프가니스탄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전했습니다.



# 난민 이야기로 보는 분야별 난민 보호 및 지원 활동

## 1. 생명을 살리는 긴급 대응

긴급구조 상황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재산은 물론, 집, 안전망, 커뮤니티까지 모든 것을 잃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전 세계 어느 곳이든 72시간 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기 중입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생명을 살리는 긴급구조 대응을 최우선으로 난민들에게 안전한 임시 거처, 깨끗한 물, 식량과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UNHCR/Andrew McConnell

**이야기 하나.**

### 아프간 실항민 몰라\*의 가족이 추위를 이겨내도록

몰라(Mullah)의 아이들이 작은 난로 안의 불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불은 진흙으로 지은 이들의 집에 소중한 온기를 선사하여 잠시나마 카불의 겨울 추위가 커튼으로 만든 문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난로 앞에 14명의 식구들이 웅기중기 모여 앉았습니다. 맨발에 얇은 누더기를 걸친 몰라의 세 살 난 딸은 작은 빵 조각을 씹고 있습니다. 평소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거라곤 빵이 고작입니다. 다섯 달 전, 몰라의 가족은 아프가니스탄 동부의 집을 떠나 카불로 피난을 왔습니다. 그때부터 몰라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느라 동분서주해왔고 영하 25도가

지 떨어지는 매서운 겨울에는 상황이 한층 더 어려웠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사태 발생 이후, 카불에 거주하는 수천 명의 실항민에게 담요, 임시 거처 자재, 요리용 스토브, 양동이, 위생 키트, 주방용품 등을 전달했습니다. 취약한 계층에는 현금도 지원했습니다. 몰라의 가족은 이러한 현금 지원으로 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딸감과 여분의 담요, 방한 의류 등을 살 수 있었고, 적시에 꼭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몰라의 가족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후원자님, 고맙습니다!

\*보호를 위해 가명 사용

### 유엔난민기구 현금 지원(2015~2021년)



33개국 →  
100개국 이상  
유엔난민기구 현금 지원  
프로그램 운영국



3,300만 명 이상  
현금 지원 수혜자



미화  
37억 달러  
현금 지원액



80%  
은행 계좌/모바일 머니



© UNHCR/Fabien Faivre

**이야기 셋.**

### 예멘 실항민 어머니 마리암이 아이들을 먹일 수 있도록

마리암(Mariam)과 아이들은 몇 개월 동안 굶주림을 견뎌 왔습니다. 먼지를 뒤집어쓴 텐트 구석의 화덕은 이들이 며칠째 아무 것도 먹지 못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보통 하루에 한번 식사를 합니다. 연료도 딸감도 없어서 플라스틱 병이나 쓰레기를 태우지요.” 마리암의 가족은 2015년 예멘 북서부에 있는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폭격으로 집이 무너졌고 친척 몇 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족은 수도 사나(Sana'a) 부근에서 안전을 찾았지만, 남편이 사망한 후 마리암은 여섯 자녀와 일곱 조카를 혼자 부양하고 있습니다. 예멘에 있는 수천 명의 실항민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실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매트, 주방 용품, 임시 거처 자재 등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마리암의 가족을 포함한 국내 실항민 140만 명은 유엔난민기구의 현금 지원으로 음식과 의약품 구매, 집세, 임시 거처 수리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예멘에서 최대 규모의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지원액은 미화 7,2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마리암의 가족이 존엄성을 지키며 효과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주신 후원자님, 고맙습니다!

**이야기 둘.**

### 만삭의 몸으로 피난길에 오른 베니시아의 가족이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 12월 고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을 때, 베니시아(Benitia)는 만삭의 몸으로 남편과 두 살 난 딸을 데리고 콩고민주공화국으로 왔습니다. 옷가지 외에 거의 아무것도 없이 기진맥진한 상태로 이곳에 도착한 베니시아의 가족은 물과 음식, 의료 지원과 머물 곳이 절실했습니다. 베니시아는 허물어져 가는 거처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아기를 출산한 기쁨은 곧 바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삶은 하루아침에 바뀌어 버렸어요. 고민이 하도 많아서 아직 아기 이름조차 짓지 못했어요.” 이곳에 사는 난민들은 비, 바람, 뜨거운 태양볏도 거의 막지 못하는 임시 텐트 수백 채에 흠어져 살며, 말라리아, 호흡기 감염, 설사 같은 질환이 아이들 사이에 흔합니다.

여러분의 관심 덕분에, 유엔난민기구는 열악한 도로 사정과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베니시아 가족과 같은 난민 수천 명을 등록하고 이들에게 수면 매트, 비누, 주방용품, 양동이, 모기장 등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난민들이 새로 지은, 더 안전하고 잘 갖춰진 장소로 이주할 수 있게 도왔으며, 도로 접근이 어려운 우기에 신속하게 물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주요 장소에 물품을 미리 배치했습니다. 베니시아 가족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신 도와주신 후원자님, 고맙습니다!



© UNHCR/Marie-Joëlle Jean-Charles

## 2. 기본 인권 보호

강제로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의 기본권은 위협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안전을 찾고 생존을 위한 싸움을 하는 동안 필수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학대와 착취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원자 여러분과 함께, 유엔난민기구는 현장에서 이들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들이 필요 서류를 갖추고, 학교에 가고, 생계를 유지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또 무국적자들이 국적을 취득하도록 돕습니다.



© UNHCR/Diana Diaz

### 이야기 넷.

#### 춤으로 되살린 데이아나의 희망이 멈추지 않도록

춤추기를 좋아하던 열네 살 데이아나(Dayana)는 2018년 불안과 식량 및 의약품 부족으로 베네수엘라 고향을 떠났습니다. 데이아나의 가족은 콜롬비아와 파나마를 가르는 정글을 뚫고 가는 길을 택했는데, 피난 과정에서 강도를 당했고 일주일 동안 물도 먹은 것도 없이 헤매야 했습니다. “곧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데이아나가 그때를 떠올립니다. 가족은 마침내 파나마에 도착해 난민 지위를 신청했지만, 데이아나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꿔놓은 것은 스페인어로 ‘연결’을 의미하는 엔라세(Enlaces)라는 방과 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유엔난민기구가 후원하는 이 프로그램은 파나마 현지 및 난민 청소년의 삶을 음악과 춤을 통해 변화시켰습니다. “엔라세 프로그램은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이에요. 어둠 속 한 줄기 빛과 같았어요.” 데이아나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여전히 장애물이 있지만, 데이아나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열정인 춤 연습을 하면서 점차 이곳 생활에 익숙해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미래를 그리며, 변호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 진학에 대해서도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이아나가 피난 여정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새로운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엔난민기구가 함께해주신 후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 이야기 다섯.

#### 아살란\*이 또래 난민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무장 단체로부터 끊임없이 살해 위협을 받던 아살란(Arsalan)\*은 위협을 피해 열여섯의 나이에 홀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신과 같이 홀로 피난하는 아이들이 폭력과 학대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현재 세르비아에서 난민 신청자로 살고 있는 아살란은 자신의 경험을 발판 삼아 또래 교육 선생님께서 유엔난민기구가 후원하는 교육과정을 가르칩니다. 세르비아에 보호자 없이 도착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난민기구는 이들을 돕기 위해 2018년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참가자들은 3개월 동안 인신매매, 착취, 차별, 성 및 젠더 기반 폭력 등의 주제를 포함한 16회 수업을 통해 자신의 권리, 학대를 인지하고 도움을 청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 프로그램은 같은 경험을 겪은 아이들 사이 교류와 유대를 촉진하고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며, 이들이 지역 사회에 통합되도록 도와줍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 제한 조치로 이동량 자체가 줄면서, 세르비아 도착 보호자 미동반 아동 수도 줄었지만, 이들은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불안 때문에 더 큰 인신매매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스스로를 지키고 자신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유엔난민기구가 함께해주신 후원자님, 고맙습니다!

\*보호를 위해 가명 사용



© UNHCR/Shubacki

### 알고 계셨나요?

- 매년 수백만 명이 인신매매 됩니다. 여성과 소녀들이, 특히 다른 가족들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 홀로 피난하는 강제 실형 아동은 인신매매의 표적이 될 위험이 높습니다.
- 코로나19 팬데믹의 사회경제적 영향으로 집을 떠난 청소년들은 더욱 취약해졌습니다. 빈곤 심화와 교육 단절로 수많은 어린이들이 성적 착취, 아동 노동, 조혼 등의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 UNHCR/Martin San Diego

### 이야기 여섯.

#### 무국적 위험에 놓인 사마 바자우족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쾌청한 토요일 일곱시 반, 알말린(Almalyn)은 사마 바자우(Sama Bajau)족 이웃들의 명단을 들고 시동이 걸린 밴 옆에 서 있습니다. 이름이 불린 사람들은 한 명씩 줄지어 밴에 오르고, 밴은 출생 등록 인터뷰를 위해 잠보앙가(Zamboanga) 시의 시민 등록 사무소로 향합니다. 사마 바자우족은 주로 필리핀 남부 지역에 사는 토착 민족입니다. 전통적인 해상 민족으로 유목민을 갖고 있는 이들은 국경을 빈번히 넘습니다. 떠돌아다니는 생활 방식 때문에 이들은 출생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살아왔고, 무국적자가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인터뷰가 있는 날, 알말린은 이웃들의 안내인이자 통역자가 됩니다. 사마 바자우족 출신인 그녀는 2019년부터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로 주민들의 출생 신고를 도왔는데, 자신도 출생 증명서를 얻기 위해 비슷한 과정을 거쳐야 했고 그 과정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전에는 인터뷰에 겁을 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등록을 위

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2019년 잠보앙가 시에서 출생 등록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도움 덕분에, 사마 바자우족 킨실리나(Kinsilina)는 마흔 살에 처음으로 출생 증명서를 손에 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생 증명서를 받다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필요하거든요. 이걸 받기 위해 오래 기다려왔지만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몰랐어요. 진심으로 감사해요.” 전 세계 수백만 명이 무국적 문제의 영향을 받습니다. 무국적자는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자유롭게 여행하거나 일자리를 구할 수 없고, 심지어 휴대 전화에 필요한 SIM 카드 한 장도 살 수 없습니다. 킨실리나와 같은 사람들이 권리를 행사하고 삶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게 유엔난민기구가 함께해주신 후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 알고 계셨나요?(2021년 기준)

**13개국**  
국제적 기준에 맞춰 국적 관련 법, 정책, 절차를 개선한 국가  
(2020년 결과: 19개국)

**4개국**  
무국적 협약 가입국(2020년 결과: 1개국)

### 3. 더 나은 미래 건설

강제 실형자들은 삶을 다시 일구고 자신과 가족, 지역사회에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으로, 난민이 다시 안전하고 존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영구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UNHCR/Gabriela Pérez Montiel

#### 이야기 일곱.

#### 올란도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니카라과 출신 난민 스몰여덟 살 올란도(Orlando)는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의 품질 관리팀에서 일합니다. "이곳에 좋아요. 여기서 내 삶을 가꿔 나갈 겁니다." 회사 대표는 난민 직원들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합니다. "정말 일하려는 의지가 강한 친구들이예요." 여러분의 후원으로, 유엔난민기구는 노동 수요가 높고 유입 인구에 대한 교육 및 보건 시스템 역량이 잘 갖춰진 멕시코에서 혁신적인 난민 지역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도착한 난민들은 자신의 권리에 대해 배우고 주거 및 일자리를 주선받아 자신의 능력과 재능, 기술에 맞는 직업을 찾습니다. 난민들은 안전한 삶을 찾고 기업들은 성장을 할 수 있는 상생의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1만 명 이상의 난민이 멕시코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와 함께 올란도와 같은 난민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후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 UNHCR/Vittoria Moretti

#### 알고 계셨나요?(2021년 기준)



**60,000**가구

빈곤 완화를 위해 '졸업 접근 방식'을 통해 지원받은 난민과 지역 사회 가구(2020년 결과: 13,711가구)

생계 및 자립

\*참여자들이 지속적인 수입을 창출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지정된 기간(보통 12~36개월) 내에 극빈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회경제적 지원 패키지



이야기 여덟.

#### 성폭력 생존자 테레즈\*가 자립할 수 있게

테레즈(Therese)\*가 콩고민주공화국의 카낭가(Kananga) 외곽의 집 근처에 세워진 트럭의 고장 난 엔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웃들은 그녀가 참찬히 피해 상태를 살피고 어디를 수리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것을 감탄하며 듣고 있습니다. 이 마흔 일곱의 여성이 끔찍한 성폭행을 당고 다시 살아갈 희망을 처음 찾은 곳은 다른 아인이 정비소였습니다. 2017년 무장 단체 간 충돌로 남편이 죽고 집이 불타버리자 그녀는 열 명의 아이들을 이끌고 숲으로 피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무장 괴한들에게 폭행을 당했고 가장 어린 두 자녀는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3주 후 카낭가에 도착했을 때, 테레즈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데다 주변으로부터 고립되어 자신과 남은 아이들을 돌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후원으로, 테레즈는 유엔난민기구가 후원하는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성폭력 생존자들에게 심리·사회적 지원과 아울러 자동차 정비, 전기, 정보 기술 등 기존에 남성 지배 영역으로 여겨지던 분야의 훈련을 제공합니다. 약 8개월의 교육 끝에 테레즈는 이제 차를 운전하고 엔진, 타이어, 브레이크를 분해하고 수리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자신감과 희망을 갖고 미래를 바라봅니다. 또한 유엔난민기구 후원으로 몇 개월 후 문을 여는 새 정비소에서 일하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배우고 찾게 되었어요. 이제 자립해서 가족을 돌볼 수 있을 거예요." 유엔난민기구와 함께 테레즈와 같은 난민에게 자립과 생계의 기회를 주신 후원자님, 고맙습니다!

\*보호를 위해 가명 사용



**3,789**헥타르

난민 거주 지역에서 산림 재건 활동을 통해 복구된 황폐한 토지 (2020년 결과: 3,000 헥타르)

에너지 및 환경 보호



© UNHCR/Saikat Mojumder



이야기 아홉.

#### 모하메드와 함께 로힝야 난민촌을 더 푸르게

스물 여덟 살의 로힝야 난민 모하메드(Mohammed)는 플랜테이션 관리자로 세계 최대의 난민촌을 푸르게 만드는 일을 돕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물주기, 묘목 돌보기, 산사태로 뿌리 뽑힌 나무 다시 심기에서부터, 삼림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지역사회 홍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쿠투팔롱(Kutupalong) 난민촌에는 100만 명이 가까운 로힝야 난민이 살고 있으며, 이들 대다수는 2017년 미얀마의 폭력 사태를 피해 이곳에 왔습니다. 대량 난민 유입에 대처하기 위해 방글라데시 정부는 2,500헥타르에 달하는 보호림을 새로 도착하는 난민 수용에 할당했습니다. 임시 거처와 기본 시설을 짓기 위해 나무가 베어졌고 남은 것은 난민들의 땀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야생 동식물의 성지였던 곳이 대나무와 방수포 지붕으로 지은 거처들이 들어선 언덕으로 바뀌었고, 문순 철 홍수와 산사태의 위험에 속수무책이 되었습니다. 이에 유엔난민기구는 숲 생태계를 되돌리고 언덕을 안정시키기 위해 식재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모하메드를 포함한 3,000명 이상의 방글라데시 주민과 로힝야 난민이 종묘장 관리, 묘목 식재와 돌보기, 어린 나무 보호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수로 정화와 복구 및 하수도 개선 작업과 재녹화 활동으로 난민촌의 홍수 피해는 크게 줄었고 꼭 필요했던 그들이 생겨 사람들의 삶을 바꿔 놓았습니다. "이 나무들을 보살필 때는 마음이 평온해요. 언젠가 고향에 돌아가면 거기서도 나무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설득할 겁니다." 유엔난민기구와 함께 모하메드와 같은 난민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공존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신 후원자님, 고맙습니다!

# 유엔난민기구 직원 인터뷰



## 방글라데시 공중보건 담당 타이무르

네팔, 이라크를 거쳐 현재 방글라데시까지, 지난 18년간 유엔난민기구 공중 보건 분야에서 일해온 타이무르(Taimur)를 만나보았습니다.

“난민 아이들의 미소를 볼 때면 그 미소를 잃지 않게 계속 노력해야겠다는 동기 부여가 됩니다.”

### 하루가 보통 어떻게 흘러가나요?

매일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보냅니다. 정부 당국과 파트너들과 함께 난민에 대한 의료 대응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며, 난민이 국가 프로그램에 포함되도록 하는 옹호 활동도 합니다. 파트너들의 업무를 모니터링하면서 전문적인 지원도 제공합니다. 또한 난민들과 직접 교류하며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 로hing야 실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무엇인가요?

우선, 정신 건강과 심리사회적 지원이 필요한데, 이러한 서비스가 난민촌 내 매우 제한적이어서 전문 지원팀을 구성해서 이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큼니다. 많은 난민 아이들과 임산부가 빈혈을 앓고 있고 영양실조 비율도 높습니다. 또한 상급 병원 의료 지원도 절실합니다. 가끔 환자를 난민촌에서 차로 6시간 떨어진 상급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때가 있는데, 접근 가능한 지역 내 2차, 3차 의료 기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방 접종 개선도 필요합니다. 많은 인구가 밀집해서 생활하는 환경에서, 예방 접종만으로도 홍역과 같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공중 보건팀이 기구의 활동에 필수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모든 인간에게 필수적이며 난민도 예외가 아닙니다. 난민촌의 생활 환경은 많은 경우 열악하며 개인의 생활 공간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난민들은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는데, 우리는 이들의 건강과 생존을 돕고 삶을 개선하면서 유엔난민기구의 보호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팀의 활동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크게 파트너들과 협업과 지역사회 활동,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현재 방글라데시에서 10개 파트너 기관과 24시간 기본 의료 시

설, 여성 클리닉, 특수 병원, 재활 센터 등 29개의 의료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활동으로는 난민 자원봉사자 약 2,000명에게 예방 메시지를 교육하고 이들을 통해 위생과 코로나 안전 수칙 등이 담긴 자료를 배포해 난민촌 내 공중 보건 인식을 높이고, 출생과 사망 같은 관련 정보를 수집합니다.

###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나 사람이 있을까요?

2017년, 미얀마에서 콕스 바자르로 많은 로hing야 난민이 들어왔습니다. 머물 곳도, 식량과 물도 거의 없는 상태로 매일 수천 명씩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등록 센터로 가보라는 전화를 받고 가보니, 매우 야윈 남성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그가 든 천으로 덮인 바구니 안에는 갓 태어난 신생아 둘이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피난길에 두 아이를 낳은 어머니는 지친 상태였습니다. 끔찍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출산했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여성과 아이들을 근처에 있는 산모 클리닉으로 데려가서 치료하고 약과 보충식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그 다음 날 다시 가족을 찾아갔을 때 아이들은 건강해 보였고, 아이들의 어머니는 매우 고마워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것 같아서 기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삶에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 일하면서 가장 힘든 점, 가장 보람 있는 점은 무엇인가요?

아픈 난민들에게 자금 부족으로 이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할 수 없다고 현실을 설명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반면에, 난민들과 함께 만든 긍정적인 결과들을 볼 때면 보람을 느낍니다. 의사로서 제 삶의 주요 목표는 항상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난민 아이들의 미소를 볼 때면 그 미소를 잃지 않게 계속 노력해야겠다는 동기 부여가 됩니다.



## 브라질 등록 및 신원 관리 담당 프란체스카

2013년 이후 이집트, 차드, 우간다, 파나마, 과테말라를 거쳐 현재 브라질에서 난민 등록 및 신원 관리 담당으로 일하고 있는 프란체스카(Francesca)를 만나보았습니다.

“개인적 타협과 희생이 뒤따르는 직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보다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 하루가 보통 어떻게 흘러가나요?

현재 브라질리아에서 일하고 있는데, 조정 회의, 비정기 회의, 현장 방문, 때로는 교육 및 역량 강화 세션을 하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요구사항이 자주 바뀌고 여러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 '정해진' 하루라는 게 없어요. 북부의 한 사무소에서 등록 문제를 처리하다가 2시간 후 다른 사무소에서는 보호 문서 초안을 작성하고, 오후에는 제가 브라질에서 감독하고 있는 다른 유닛들과 조정 회의를 하는 식이에요.

### 등록팀이 기구의 활동에 필수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 어떠한 문서도, 신분증도, 이름이 적힌 서류도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학교나 직장에 다니며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까지, 이 모든 기본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등록 과정을 통해 각 개인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기록하여 이들의 개별 필요를 파악합니다. 즉, 등록은 개인의 신원을 보호하는 방법이며 문서화 과정을 통해 이들이 건강, 교육, 식량과 영양에 대한 접근을 통해 기본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작업은 특히 노인, 임산부, 어린이, 젠더 기반 폭력 생존자 등과 같은 취약한 인구를 다룰 때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보호 대상자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하는 게 우리의 주요 책임 중 하나인데, 이들의 삶에서 변화하는 모든 상황을 기록해놓으면 대응과 조정, 위탁 등이 더욱 수월해집니다.

### 현재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등록 업무에는 우선, 훈련된 인력, 인프라, 기술, 도구가 필요합니다. 등록 절차를 더 빠르고 정확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있고 등록 활동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 파트너 기관, 다른 유엔난민기구 유닛과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

고 보호 대상자들과의 소통을 조정, 개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등록 업무에 있어서 유엔난민기구의 차별화된 장점은 무엇입니까?

유엔난민기구의 가장 큰 장점은 적응력과 유연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시대적, 지리적 환경과 상황에 따라 적응하고 변화하면서, 수년간 기구의 핵심 가치와 원칙을 유지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1970년대에는 현금 기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지만, 시대의 흐름과 필요에 발맞춰 이제 우리 활동의 큰 부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광범위한 경험과 이해 관계자들과 구축해 온 긴밀한 관계 덕분에, 이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 유엔난민기구에서 일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때부터 인도주의 분야에 관심이 있었고 대학에서 관련 수업을 들으면서 더욱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개인적 타협과 희생이 뒤따르는 직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보다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석사 학위 후 유엔난민기구 난민지위결정(RSD) 유닛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건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기구에 대한 강력한 이해 기반을 다질 수 있었고, 등록 업무에 대한 관심을 키울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른 부서에서 일하다가 등록 담당으로 일하게 되었을 때, 바로 업무에 투입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 일하면서 가장 힘든 점, 가장 보람 있는 점은 무엇인가요?

매일 고통을 목격하고 어려운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힘들고 개인적으로도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만든 변화, 특히 우리의 활동이 투자한 것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때, 도전으로 느껴졌던 어려움은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UNHCR/Martim Gray Pereira

### 모잠비크 커뮤니티 기반 보호 담당 엘리사

무력 충돌로 70만 명 이상이 실항한 모잠비크 카보 델가도 (Cabo Delgado)에서 난민들을 보호하고 특히 젠더 기반 폭력에 맞서 생존자들을 돕고 있는 엘리사(Elisa)를 만났습니다.

“이들과 대화하다 보면 이들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회복력을 가진 사람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 하루가 보통 어떻게 흘러가나요?

현장에서는 지역 사회와 협력하면서, 젠더 기반 폭력 생존자들의 건강, 안전 등을 비롯해 이들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필요시 더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연결해줍니다. 사무실에서는 현장에서 수집한 정보를 기록하고 보호 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 설계 및 실행, 지원 가능한 현장 단체 파악, 다른 유엔 기구와의 조정 등의 업무를 합니다. 또한 유엔난민기구 직원과 파트너 모두를 대상으로 젠더 기반 폭력에 대응한 역량을 개발하고, 성적 착취 및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다른 인도주의 단체들과도 협력합니다.

#### 젠더 기반 폭력 대응 활동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모잠비크와 같은 환경에서 젠더 기반 폭력 문제를 다루는 건 매우 복잡한 일입니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 일이고 생존자들은 지속적인 후속 조치 등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 이러한 지원은 충분한 자금이 달려야 합니다. 작년만 해도 카보 델가도에서는 젠더 기반 폭력 전문 서비스, 혹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는 거의 없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유엔인구기금(UNFPA) 및 정부와 주로 협력해왔는데, 자금과 직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생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저희의 존재를 알고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이들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자원이 가장 필요합니다.

#### 젠더 기반 폭력팀이 기구의 활동에 필수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젠더 기반 폭력 대응은 기본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한 개인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안전한 곳에 이르게 도와주는 많은 공감과 적극적인 경청이 필요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도 젠더 기반 폭력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폭력은 문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의 근본 원인에 개입해서 장기적으로 규범을 바꾸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가 만든 이러한 시스템은 앞으로 지역사회, 정부, 다른 단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팀의 활동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활동을 시작한 지 이제 겨우 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존자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구축했으며 데이터와 정보도 확보한 상태여서 이제 대응 활동에 집중할 때입니다. 성 기반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가장 고립된 지역에서도 서비스받을 수 있게 이동 지원팀을 꾸려 사례 관리와 심리사회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리걸 카라반과 같은 이동팀은 문서화 작업을 통해 생존자들이 권한을 찾을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생계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생존자들이 자신과 자녀를 부양하여 학대 상황에서 탈출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현장 안전 감사를 실시해 특정 지역에서 야간 성폭력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로등을 설치하고 후속 조치로 태양광 램프를 배포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직접 관여하기 어렵거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파트너들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 일하면서 가장 힘든 점, 가장 보람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힘든 부분은 확실히 이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저 자신이 비슷한 일을 겪었거나 비슷한 일을 겪은 비슷한 누군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특정 이야기가 개인적으로 와닿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모두 주고 싶지만, 늘 한계가 있습니다. 이들과 대화하다 보면 이들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회복력을 가진 사람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들이 스스로 다시 서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학대 상황에서 벗어나 도움을 구하고 자신의 힘을 키워서 더 나아가 다른 사람과 커뮤니티를 돕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정말 감동적인 일입니다.



© UNHCR/Martim Gray Pereira



© UNHCR/Shadi Abusneida

### 예멘 현금 지원 담당관 사마르

심각한 인도적 위기로 인구의 66%가 외부 지원에 의존해 살아가는 예멘에서 현금 지원 담당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마르(Samar)를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가장 취약한 실항민 가족의 삶을 바꾸는 데 소중한게 쓰입니다.”

#### 하루가 보통 어떻게 흘러가나요?

매일 조정과 계획 업무로 하루를 보냅니다. 파트너를 통해 현장의 수요를 조사하고, 가용 자금을 따라 지원 계획을 세운 후,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해 몇 명이 도움이 필요한지,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우선 순위로 몇 명을 도울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현장 사무소, 금융 서비스 업체와 협력해서 현금을 분배하고 그 과정을 모니터링합니다. 불만 사항이 접수된 경우 응대하기도 합니다.

#### 예멘 실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무엇인가요?

실항민 대부분은 먹을 것을 사거나, 집세를 내거나, 병원에 가거나 약을 살 돈이 없습니다. 유엔난민기구에서 받은 매트리스나 담요가 비에 젖어서 다른 대체할 물품이 없이 야외에서 잠을 자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경제난으로 아이들을 학교 대신 일터로 보내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 제 조카가 매우 배고파하면서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가져갔던 음식을 안 먹었다고 물어보자 이를 동안 굶은 친구가 있어서 그 아이에게 음식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늘 듣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겨울이면 이러한 어려움이 더욱 커집니다. 겨울옷, 담요, 히터 등 보온용품 사기 힘든 사람들도 많고, 실항민 아이들이 추위로 인해 사망했다는 보고를 듣기도 합니다. 긴급 물품과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가족의 자립을 돕고 이들이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현금 지원팀이 기구의 활동에 필수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장에서 현금 지원팀으로 일한다는 건, 현장의 고통을 가까이에서 보고 이들과 직접 교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예멘에서 10개 이상의 커뮤니티 센터를 운영하면서 실항민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보를 수집하면서 이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해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우리는 현금 지원을 통해 실항민들이 스스로의 필요와 취약성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지난번 겨울 지원 활동으로 현금과 함께 담요를 나눠줬는데, 이틀 전 시장에 갔더니 그 담요 중 일부가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놀랍지는 않았습다. 음식과 약, 집세 등이 더 우선순위일 수 있으니까요. 현금 지원은 실항민들의 필요를 가장 잘 반영한 지원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2021년 현금 지원을 통

해 예멘에서 20만 가구에 생명을 살리는 도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나 사람이 있을까요?

북부의 암란(Amran) 주에서 세 아이를 둔 어머니를 만났는데, 남편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가족에게는 수입이 아무것도 없어서 아이들은 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유엔난민기구의 현금 지원 덕분에, 아이들은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어머니는 음식과 우유 등을 살 수 있었어요. 현금 지원 일부를 아픈 아내의 치료비로 사용하고 남은 돈으로 감자를 사다가 삶아서 다시 내다 파는 남성도 있었습니다. 가족이 수입원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지요. 이러한 이야기들은 제게 영감을 줍니다. 우리의 활동으로 가족들이 다시 삶을 일구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낍니다.

#### 유엔난민기구를 돕는 게 왜 중요한가요?

예멘에서 수많은 가족이 현금 지원에 의존해 살아갑니다. 이러한 지원이 없다면, 어머니는 아이들을 먹일 수도 없고 아이들을 일터로 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픈 사람은 치료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가장 취약한 실항민 가족의 삶을 바꾸는 데 소중한게 쓰입니다.



© UNHCR/Shadi Abusneida

# 2021 캠페인 업데이트

## # 코로나19 캠페인

유엔난민기구는 코로나19에 대응한 보호와 지원을 이어 나가기 위해 2020년 말 코로나19 추가 기금을 요청했습니다. 각국이 여행 제한을 완화하고 백신, 원격 학습, 사회 및 직업 보호 등 국가 계획을 시행하는 가운데, 유엔난민기구는 코로나19로 불균형적으로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강제 실항민과 무국적자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영토와 난민 신청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보호 대상자를 포함한 포용적인 각국의 백신 접종 및 회복 계획, 지역사회 정보 네트워크의 역할, 가장 극심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현금 지원의 가치 등을 전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 사회적 보호

**280만 명**  
증가하거나 확장된 사회적 보호의 혜택을 받은 난민 혹은 난민 신청자  
보고국: 84개국

### 지역 사회 소통

**89%**  
난민, 국내 실항민, 기타 보호 대상자를 보호하고 있는 국가 중 코로나19 팬데믹 위험에 대한 정보 캠페인 공유받은 국가  
2021년 목표: 100%  
보고국: 140개국

### 보호

**1,970만 명**  
보호 서비스에 접근한 난민, 난민 신청자, 국내 실항민, 기타 보호 대상자  
2021년 목표: 1,600만 명  
보고국: 148개국

### 보호 대상자 인구에 대한 책임성

**65%**  
난민, 국내 실항민, 기타 보호 대상자를 보호하고 있는 국가 중 다체널 피드백 및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국가 비율  
2021년 목표: 100%  
보고국: 147개국

### 건강

**929만 명**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은 난민, 난민 신청자, 기타 보호 대상자  
2021년 목표: 900만 명  
보고국: 79개국

**74%**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성 기반 폭력 생존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국가  
2021년 목표: 100%  
보고국: 130개국

**841,100명**  
정신 건강과 심리-사회적 지원 받은 난민, 난민 신청자, 국내 실항민, 기타 보호 대상자  
2021년 목표: 650,000명  
보고국: 85개국

**112,370명**  
급성 중등도 영양실조(MAM) 치료를 받은 6~59개월 어린이  
2021년 목표: 129,740명  
보고국: 28개국

**45,380명**  
급성 고등도 영양실조(SAM) 치료를 받은 6~59개월 어린이  
2021년 목표: 44,900명  
보고국: 29개국

### 교육

**979,660명**  
인터넷(온라인) 혹은 가정 기반 학습을 지원 받은 아동과 청소년  
2021년 목표: 950,000명  
보고국: 82개국

**125만 명**  
성 건강과 생식 건강 서비스를 이용한 여성과 소녀  
2021년 목표: 125만 명  
보고국: 50개국

**100%**  
코로나19 백신 계획에 난민 그리고/혹은 기타 보호 대상자를 포함한 국가 비율  
2021년 목표: 100%  
보고국: 162개국

**479만 회분**  
난민 325만 명에게 집중된 코로나19 백신  
보고국: 66개국

**127만 명**  
의무 휴교 조치로 학교에 못 다니는 난민 아동과 청소년  
보고국: 61개국

**129,890명**  
코로나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보호 대상자  
보고국: 55개국

**현금지원 930만 명**  
현금 지원을 받은 난민, 국내 실항민, 기타 보호 대상자  
보고국: 96개국

## #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고등 교육 캠페인

교육은 개인과 지역사회의 더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난민과 실항민, 무국적자들은 여전히 고등 교육을 받고 가능성을 실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유엔난민기구는 차이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의 후원 덕분에,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캠페인(Aiming Higher Campaign)"은 유엔난민기구 장학 프로그램을 위해 미화 750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여섯 개 대륙에서 우수하고 성실한 젊은 난민 학생 586명에게 고등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우리는 모든 난민들이 자립하고 정착한 지역사회에 긍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미래의 비전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 UNHCR/Antoine Tardy

## # 라마단 캠페인

라마단은 이슬람 세계의 축기 기간입니다. 이 신성한 달에 전 세계 이슬람 가족들은 한자리에 모여 성찰, 공동체, 자비의 시간을 가집니다. 2021년 수천 명이 강제 실항민 가족들을 도와 특별한 연대와 관용의 라마단 정신을 기렸습니다. 올해 라마단 캠페인에서는 미화 1,060만 달러가 모금되어 한 해 동안 5만 8,000명의 실항민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요르단, 레바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모리타니, 말리, 시리아, 예멘, 방글라데시의 가족들은 여러분의 정성 어린 후원으로 절실히 필요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 UNHCR/Deem

## # 겨울 캠페인

겨울철의 얼어붙는 기온과 혹독한 날씨는 특히 강제 실항민들에게는 큰 시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항민 가족들은 적절한 거처도, 따뜻한 옷도, 난방비도 의약품도 없이 추위와 사투를 벌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여러분의 후원이 더욱 절실하며, 여러분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어왔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아낌없는 후원으로, 2021년 유엔난민기구는 미화 1,750만 달러를 모금하여 아프가니스탄,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이집트, 이라크에 있는 난민 가족들이 추운 계절에 따뜻하고 건강하게 지내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 UNHCR/Andrew McConne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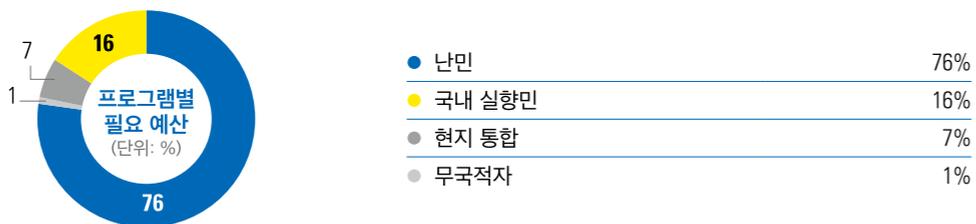
# 재정 보고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에 전달해주시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은 매일 제네바 본부로 보내져 연례 계획과 긴급 대응 필요에 따라 전 세계 난민 보호 활동에 사용됩니다.

## 1. 글로벌 재정 보고

### 1 필요 예산

유엔난민기구의 필요 예산은 2010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수요조사(Global Needs Assessment, GNA)를 바탕으로 책정됩니다. 글로벌 수요조사는 해당국 정부, UN 기구, 비정부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각 지역사무소가 담당하는 국가별 보호 대상자의 수와 사업 필요성을 조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2개년간 보호 대상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예산을 구상하고, 사업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세밀한 검토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유엔난민기구 집행이사회(Executive Committee, ExCom)의 승인을 통해 확정됩니다. 유엔난민기구의 2021년 예산은 2020년보다 1억 1,700만 달러 증가한 92억 4,800만 달러였습니다. 필요 예산은 2020년 10월 제71회 집행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예산 86억 1,600만 달러에 코로나19, 에티오피아, 아프가니스탄, 베네수엘라 사태를 위한 추가 예산 6억 3,170만 달러를 적용해 최종 92억 4,800만 달러로 확정하였습니다.



### 2 수입

유엔난민기구 수입의 대부분은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조성됩니다. 2021년에는 다년 기금과 UN 분담금을 포함해 약 46억 8,000만 달러의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2020년 이월금, 조정 환율 및 그 외 출처로부터 얻은 순이익 등이 더해져 2021년 유엔난민기구의 총 가용 기금은 2020년보다 약 2억 5,100만 달러 줄어든 약 51억 5,300만 달러였습니다.

#### 수입 세부 내역

단위: 미화 달러

구분	금액	
2021년 자발적 후원금 (99%)	각국 정부 및 유럽연합(EU) 민간 후원 UN 기금 및 정부 간 기구*	3,900,000,000 625,300,000 111,000,000
2021 UN 분담금** (1%)		43,200,000
2021년 수입		4,679,500,000
2020년 이월금과 2021년 총 가용 기금		5,153,000,000

\* UN 기금 및 정부 간 기구(UN pooled funding and intergovernmental donors)  
\*\* UN 분담금(UN Regular Budg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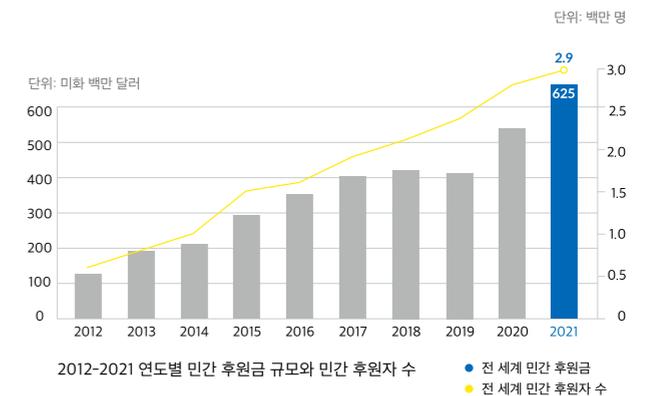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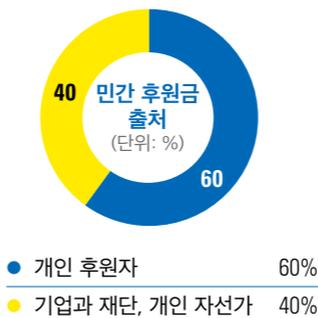
#### 수입 출처

2021년 수입의 약 83%는 각국 정부 및 유럽연합(EU)에서, 약 13%는 개인과 기업, 재단 등 민간 영역에서, 2%는 UN 기금 및 정부 간 기구에서 조성됐습니다. UN 본부로부터 한 해 활동을 위해 지원받는 UN 분담금 조성 수입은 1%에 불과했습니다. 2021년 자발적 후원금의 75%는 상위 10개국(미국 정부, 독일 정부, 유럽연합(EU), 일본 정부, 스웨덴 정부, 스페인 민간 영역, 노르웨이 정부, 프랑스 정부, 덴마크 정부, 네덜란드 정부)에서 조성됐습니다. 한편, 전체 수입의 36%는 갑작스러운 난민 위기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고 현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지정, 혹은 유연 지정 기금이었습니다. 2021년 사용 가능한 다년 기금은 약 5억 7,510만 달러였고, 2021년 12억 이상의 가치에 상응하는 다년 기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3 민간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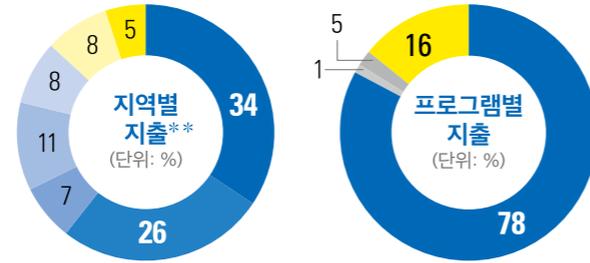
2021년 민간 영역에서는 전체 수입의 13%를 차지하는 6억 2,530만 달러의 후원금을 조성했습니다. 개인 후원자가 전체 후원금의 약 60%에 해당하는 3억 7,720만 달러를 후원했고, 개인 후원자 수는 29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기업과 재단, 개인 자산가로부터의 후원금은 2억 4,810만 달러로 전체 민간 후원금의 40%를 차지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등 긴급구호 어필을 통한 후원금이 전체 민간 후원금의 약 43%를 차지했습니다.



### 4 지출

2021년 유엔난민기구는 2020년보다 약 8,030만 달러 증가한 총 49억 1,800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아프리카에서의 지출이 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중동·북아프리카에서의 지출은 전체의 26%를 차지했으며, 아시아·태평양, 미주, 유럽에서는 11%, 8%, 7%의 기금을 각각 사용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의 활동과 운영을 지원하는 글로벌 프로그램\* 지출은 코로나19 관련 비축품을 포함해, 일부 물품 수요 감소 등의 이유로 전년 대비 줄어 전체 지출의 8%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본부 사무소의 지출은 비즈니스 혁신 프로그램, 정보통신기술 보안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 등의 이유로 증가해 전체 지출의 5%를 차지했습니다.



● 아프리카	34%	● 난민	78%
● 중동·북아프리카	26%	● 국내 실향민	16%
● 유럽	7%	● 현지 통합	5%
● 아시아·태평양	11%	● 무국적자	1%
● 미주	8%		
● 글로벌 프로그램	8%		
● 본부	5%		

프로그램별로는 전체 지출의 약 78%가 난민 지원 프로그램에 사용됐으며, 국내 실향민, 현지 통합, 무국적자를 위한 프로그램에 지출의 약 16%, 약 5%, 약 1%가 각각 사용됐습니다.

\* 글로벌 프로그램: 전 세계 사업 현장에서의 다양한 난민 보호 활동과 운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정보통신시스템 관리, 난민 등록 및 지식 데이터 관리, 직원 교육 및 현장 안전 관리, 보급 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업무를 포함합니다. 직접적인 난민 보호 활동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지만, 지원 업무의 범위와 성격을 고려해 각 지역 혹은 국가별 사무소가 아닌 본부에서 예산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 소수점 이하 반올림 적용으로 합산이 정확히 100%가 되지 않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전문성, 책임성, 투명성의 원칙 아래,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이 전 세계 난민 보호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책임성	투명성
영구적인 난민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전문 UN기구	책임 있는 난민 보호 활동	투명한 후원금 운영
UN 총회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아 활동하고 있는 유엔난민기구는 난민 보호와 난민 문제의 영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전문 UN기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72 시간 이내에 최대 60만 명을 지원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난민을 비롯한 보호 대상자들 곁을 항상 지킵니다.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황이 안전하게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책임 있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전액 유엔난민기구의 난민 보호 사업에 쓰입니다. 민간 부문에서 모인 후원금 전액은 익월 유엔난민기구 본부로 송금되어, 유엔난민기구의 연례 계획과 긴급구호 대응 필요에 따라 전 세계 난민 보호 사업에 사용됩니다.

## 2. 한국대표부 재정 보고



지난 재정보고

### 민간 후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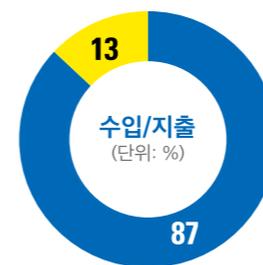
2021년 개인, 기업, 재단 등 민간 부문에서는 원화 총 55,859,767,338원이 조성되어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수입		단위: 원화
● 개인	54,354,177,139	
● 기업, 단체	1,505,590,199	
총	55,859,767,338	

지출		단위: 원화
● 가장 필요한 곳에 (86.9%)	가장 필요한 곳에 현물·면 기저귀 기부	48,293,383,604 213,211,350
	시리아 긴급구호	2,723,114,692
	아프가니스탄 긴급구호	729,852,847
	전 세계 긴급구호 활동	711,995,450
	코로나19 긴급구호	422,449,002
	미얀마 긴급구호	101,000,970
● 긴급구호 (8.8%)	로힝야 긴급구호 방글라데시	66,182,038
	방글라데시 난민촌 산모/아동 영양 지원	120,000,000
	인도네시아 긴급구호	12,600,000
	동아프리카 긴급구호	10,950,000
	레바논 긴급구호	10,169,000
	콩고화산폭발 긴급구호	6,453,400
	예멘 긴급구호	200,000
● 글로벌 쉼터 캠페인 (3.7%)	글로벌 쉼터 캠페인	2,067,944,985
	쉼터 캠페인·우간다	8,770,000
	SBS 희망TV 기금 케냐	173,949,000
	케냐 난민촌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90,000,000
● 기타 기금 (0.6%)	SBS 희망TV 기금 DR콩고	86,725,000
	나인밀리언 캠페인기금*	5,986,000
	MBC W기금**	4,830,000
총		55,859,767,338

\* 900만 어린이 난민 교육 지원  
\*\* 아프리카 어린이 난민 교육 지원

### 대한민국 정부 후원금



2021년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난민기구에 미화 총 27,023,846달러를 후원했고,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기탁 구분		단위: 미화
● 지정 기탁	시리아 등 인도주의 위기 상황에 따른 유엔난민기구의 추가 대응 사업 등	23,517,235
● 비지정 기탁	유엔난민기구 연간 사업 계획에 따른 지원	3,506,611
총		27,023,8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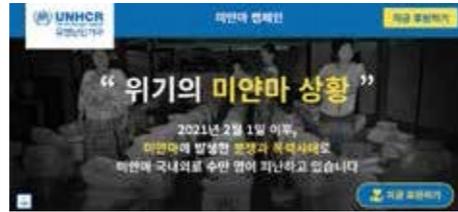
# 한국대표부 주요 활동

##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한 코로나 마스크 지원

대한민국 정부는 2021년 상반기 12개국에 있는 유엔난민기구의 보호대상자 및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의료용 마스크 360만 장을 지원했습니다.



2021년 상반기



## 미얀마 긴급구호 캠페인 홍보 및 모금 활동

2021년 5월 본부에서 미얀마 긴급구호 캠페인 시작 이후, 한국대표부에서도 미얀마 난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에서 홍보 및 모금 캠페인, 후원자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5월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2021년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긴급구호 캠페인을 중심으로, 연중 다음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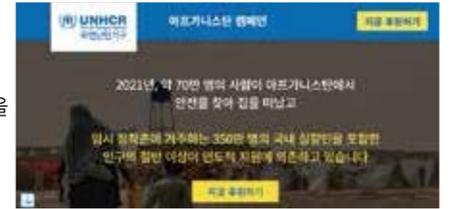


## 로힝야 난민 대응 및 지속 지원 노력

외교부, 코이카(KOICA) 및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를 방문해 로힝야 난민에 대한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구축, 수용국 커뮤니티 지원을 위한 보건위생, 식수, 성젠더폭력 및 기후변화 등을 논의했습니다.

## 아프가니스탄 긴급구호 캠페인 홍보 및 모금 활동

2021년 8월, 본부에서 아프가니스탄 긴급구호 캠페인을 시작한 이후, 한국대표부에서도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보호하고 긴급구호에 도움을 손길을 보태기 위해 다양한 채널에서 홍보 및 모금 캠페인, 후원자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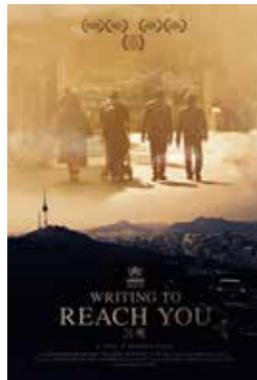
2월



## 파트너 기업과 함께한 난민 지원

작년 2월, 삼성전자의 후원으로 케냐 난민촌 거주 난민 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해 갤럭시탭 1천 대를 전달했습니다. 후원한 갤럭시 탭은 케냐 카쿠마(Kakuma)와 다답(Dadaab) 난민촌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활용되었습니다. 한편 작년 4월, 은홍섬유의 후원으로 난민 영유아의 위생 개선을 위해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면 기저귀 62,700개를 파키스탄 난민촌에 전달했습니다.

4월



## 세계 난민의 날, 난민 다큐멘터리 온라인 상영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하여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가 제작한 난민 다큐멘터리 영화 다섯 편에 대한 온라인 상영회를 개최했습니다. '경계에서(2017)', '호다 (2018)', '안식처(2019)', '실향민(2020)', '기록(2021)'을 상영하고, 관객과의 대화 세션을 통해 난민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6월

9월



## 난민과 함께하는 유스 아트 콘테스트 개최

'스포츠로 하나 되는 우리'라는 주제로 유스 아트 콘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1,600여 점의 축구공 디자인이 접수되었고, 참가자 3명 중 1명은 난민, 난민 신청자 혹은 국내 실향민 출신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학교 및 단체, 개인이 콘테스트에 참가했습니다. 한국대표부는 글로벌 심사위원이 선정한 글로벌 수상작 5점과 별도로, 한국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11점을 선정하여 난민 문제에 대한 관심과 콘테스트 참여에 대한 감사를 전했습니다.

11월

## eCentre 캠프 조정 관리 웨비나 개최

유엔난민기구 아태지역 긴급구호 훈련센터(eCentre)와 함께 통일부, 질병관리청, 국가보훈처, 비상안전 담당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캠프 조정 관리 웨비나를 개최했습니다.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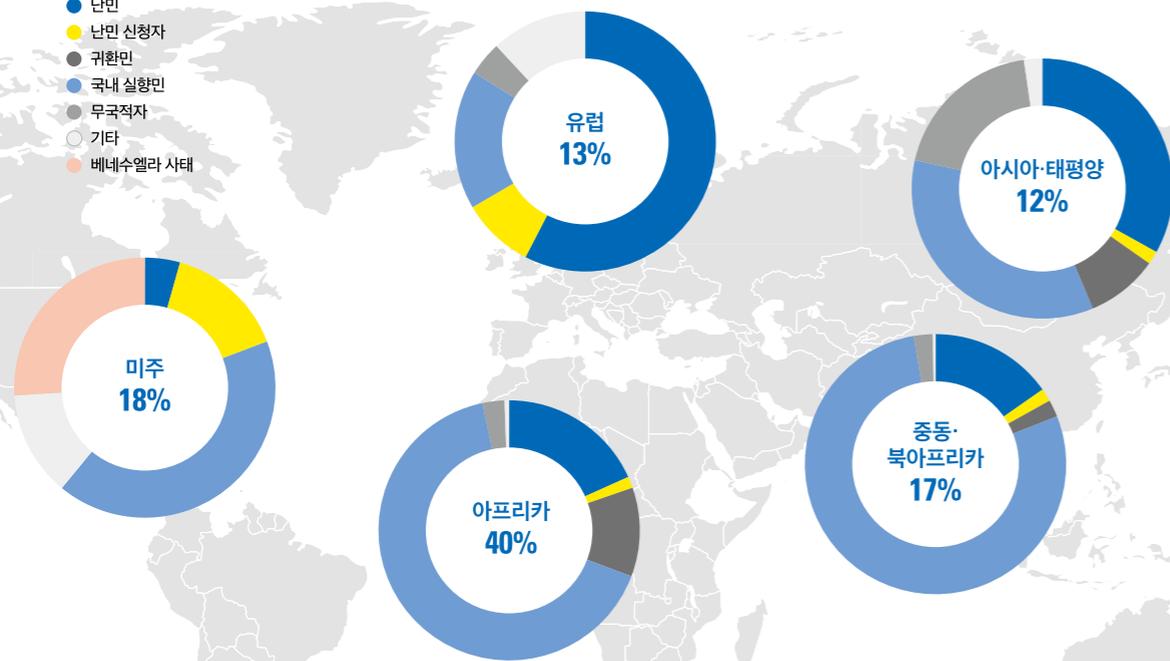
## 유엔가입 30주년 기념 포럼 개최

한국의 유엔가입 3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 주제 유엔기구, 외교부, 유엔한국협회가 공동으로 '다자주의의 미래와 한국의 역할'을 논의하는 온라인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 유엔난민기구 보호 대상자

유엔난민기구 보호대상자(UHCR Persons of Concern, POC)는 난민, 국내 실향민, 귀환민, 무국적자 등을 비롯해 유엔난민기구가 보호하고 지원하는 대상자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 난민
- 난민 신청자
- 귀환민
- 국내 실향민
- 무국적자
- 기타
- 베네수엘라 사태



2021년 12월 말 기준, 단위: 명

	난민	난민 신청자	귀환민	국내 실향민	무국적자*	기타	베네수엘라 사태	합계
아프리카	6,989,067	542,471	4,233,115	25,244,508	1,034,562	219,197		38,262,920
미주	738,517	2,524,543	7	7,084,592	4,550	2,217,249	4,406,409	16,975,313
아시아-태평양	4,154,615	205,789	1,120,814	4,366,634	2,412,453	284,031		11,342,153
유럽	7,003,719	1,093,527	373	2,107,239	515,429	1,446,688		12,097,566
중동·북아프리카	2,440,999	257,424	340,547	12,519,650	370,564	56,662		15,985,782
합계	21,326,917	4,623,754	5,694,856	51,322,623	4,337,558	4,223,827	4,406,409	94,663,734



글로벌 동향 보고서

\* 미얀마 등 일부 무국적 수치는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난민과 난민 신청자, 국내 실향민 수치와 중복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따라서 합산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 후원자님, 고맙습니다!



유엔난민기구로부터 구호 물품을 받은 모잠비크 실향민 가족 © UNHCR/Delliany de Souza

2021년 우리 모두를 덮친 불확실성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관심과 공감이 더 절실했습니다. 위기로 점철된 한 해 동안, 여러분은 더욱 큰 도움의 손길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유엔난민기구는 생명을 살리고,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전 세계 난민과 실향민, 무국적자들이 더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강제 실향민 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한 시기에 여러분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함께했습니다.

**언제나 유엔난민기구와 전 세계 난민 가족의 든든한 힘이 되어주시는 후원자님,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우측 QR코드를 통해 2021 연례 보고서에 대한 설문조사에 참여자 중 일부를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설문 조사

## 유엔난민기구 사명 UNHCR Mission Statement

유엔난민기구(UNHCR)는 전 세계 난민 보호와 난민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제적인 행동을 이끌고 조정할 의무를 UN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유엔난민기구의 주요 목표는 난민의 권리와 복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고자 유엔난민기구는 모든 사람이 비호를 신청할 수 있고, 타국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찾으며, 자발적으로 귀환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민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나라에 영구 정착하는 것을 도움으로써 난민의 어려움에 대한 영구적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유엔난민기구의 상임이사회 및 UN 총회는 난민 외에도 본국으로 돌아간 귀환민, 국내 실향민 그리고 국적이 논란이 되거나 없는 무국적자들에 대해서도 유엔난민기구의 개입을 허가하였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강제 실항 문제를 줄이기 위해, 국가 및 국가기관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인권이 보호되는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협력하고 있으며, 기구의 모든 활동 가운데 아동 및 여성을 보호하고 이들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난민기구는 각국 정부, 지역 기구,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와 협력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참여의 원칙을 고수하며 난민을 포함한 기구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기구의 결정에 반영되는 것이 마땅함을 믿습니다.



난민을 보호하고 영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UN기구입니다.

홈페이지 [www.unhcr.or.kr](http://www.unhcr.or.kr)

전화 02-773-7272

이메일 [withyou@unhcr.or.kr](mailto:withyou@unhcr.or.kr)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6(을지로1가) 금세기빌딩 7층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